
- 2019년도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9. 12.

은 평 구 의 회
[재무건설위원회]

목 차

I. 출장개요	1
II. 출장국 현황.....	3
III. 방문기관 및 시설 주요내용.....	4
IV. 출장결과	17
1. 의원 결과보고서 (정남형 의원).....	17
2. 의원 결과보고서 (강용운 의원).....	21
3. 의원 결과보고서 (문규주 의원).....	31
4. 의원 결과보고서 (오덕수 의원).....	38
5. 의원 결과보고서 (신봉규 의원).....	41
6. 의원 결과보고서 (송영창 의원).....	48

- 2019년도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I 출장개요

☐ 출장목적

- 미국의 지방의회와 교류를 통해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고 환경 관련 시설 및 기관을 방문하여 폐기물 재활용 처리 관리 및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도시개발과 창업지원 우수 정책을 비교하여 우리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고 도시재생의 우수사례 지역, 공원, 시장을 방문하여 현안·정책 과제의 판단에 필요한 견문을 얻어 의정활동에 접목하고자 함.

☐ 출장국가 : 미국 (워싱턴, 뉴욕)

☐ 출장기간 : 2019. 11. 11. ~ 11. 18. (6박 8일)

☐ 출장인원 및 업무 : 8명 (의원 6명, 직원 2명)

연 번	소 속	성 명	업 무 분 담
1	재무건설위원회	정 남 형	공무국외출장 업무 총괄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
2	재무건설위원회	강 용 운	환경보호 및 재활용관리 관련 분야
3	재무건설위원회	문 규 주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
4	재무건설위원회	오 덕 수	시장활성화 및 건축양식 분야
5	재무건설위원회	신 봉 규	도시재생 및 일자리·창업 관련 분야
6	행정복지위원회	송 영 창	선진 지방자치 제도 비교 분야
7	의회사무국	홍 석 중	공무국외출장 수행 총괄 (출장 일정 관리 및 자료수집)
8	의회사무국	김 민 우	대외협력 및 사진 자료수집

□ 출장일정

일 시	지 역	방 문 장 소	비 고
2019. 11. 11.(월)	김포 북경 뉴욕	김포 국제공항 출발 북경 공항 경유 뉴욕(JFK) 공항 도착 첼시마켓 (Chelsea Market)	
2019. 11. 12.(화)	뉴욕 워싱턴	뉴욕센트럴파크 (New York Central Park)	
2019. 11. 13.(수)	워싱턴	페어팩스 시 의회 (Fairfax City Council) 미국환경보호청 (EPA)	
2019. 11. 14.(목)	워싱턴	주택 감독관 사무소 (Housing inspector) 국회의사당, 백악관	
2019. 11. 15.(금)	뉴욕	뉴욕경제개발공사 (NYCEDC) 더하이라인파크 (The Highline Park) 허드슨야드베슬 (Hudson Yards Vessel)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사무소	
2019. 11. 16.(토)	뉴욕 북경	·뉴욕(JFK) 공항 출발	
2019. 11. 17.(일)	북경	·북경 공항 경유	
2019. 11. 18.(월)	북경 인천	·북경 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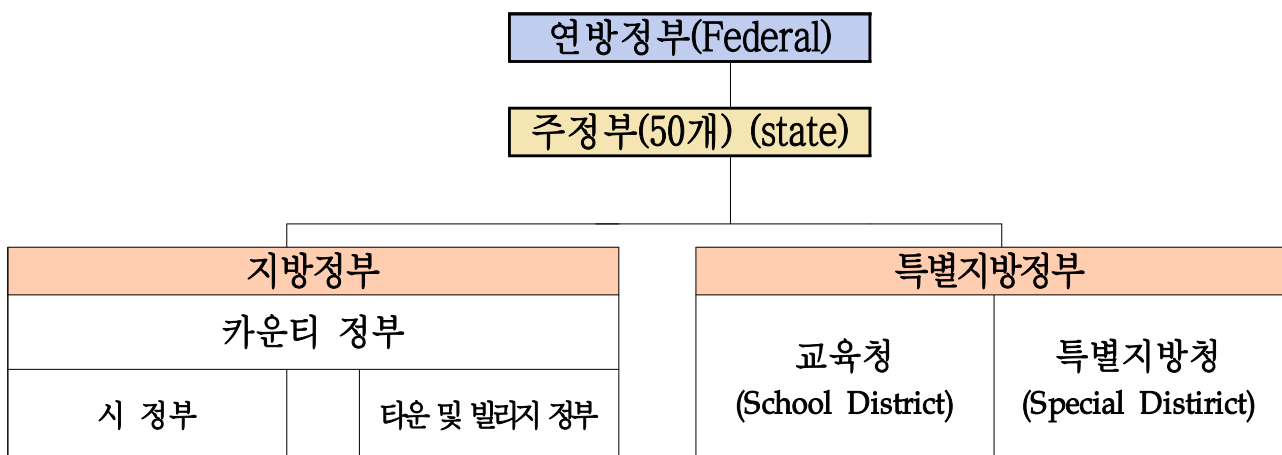
※ 현지 사정에 따라 당초 일정의 방문 일자가 일부 조정되었음.

II 출장국 현황

□ 일반사항

국명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수도	워싱턴 D.C (Washington DC)
인구	3억 2,686만명(2018년)/세계 3위
면적	9,833,517km ² (한반도의 약 45배)/세계 3위
교육	12년제 의무교육
정부형태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의회	상하 양원제/상원 : 100석(임기 6년), 하원 : 435석(임기 2년) ※ 주요 정당 : 공화당(Republican Party), 민주당(Democratic Party)
행정구역	50개 주(state)와 1개의 특별구(district)인 워싱턴DC ※ 각 주(state)는 카운티(county)로 나뉘어져 있음.
화폐단위	US dollar(USD, \$)
경제지표 (2018년)	• GDP : 20조 4,128억 USD • 1인당 GDP : 62,152 USD

□ 미국의 지방정부 구조



* 페어팩스시(City of fairfax)는 시 정부에 해당함.

Ⅲ 방문기관 및 시설 주요내용

□ 첼시마켓 (Chelsea Market)

○ 개요

- 위치 : 75 9th Ave, New York, NY 10011
- 운영시간 : 월요일 ~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누리집(홈페이지) : <http://chelseamarket.com/>

○ 주요내용

- 뉴욕에 위치한 마켓으로 식료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음.
매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뉴욕의 쇠퇴한
과자공장 지대를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기존 건물을
이용한 공간 복원 및 재생의 가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색있는
상점들이 입주함에 따라 예술과 패션 거리로 탄생하였음.
수프에서 견과류, 와인, 커피, 치즈, 케이크에 이르기까지 60개
이상의 상점이 입주하여 있음.

○ 방문내용

- 대표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꼽히는 선진화된 시장인 첼시마켓을 방문
하여 특색 있는 상점들의 운영 상황 등을 직접 보고 기록하며 공간의
복원과 재생으로 이루어진 마켓 내 공간과 배치의 현황을 참고하여
향후 관내 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우수지역의 건축양식 분야를 탐구하였음.

○ 방문사진



첼시마켓 정문



첼시마켓 안내판 디자인



첼시마켓 벽돌 디자인 활용 사례



첼시마켓 관계자 면담



첼시마켓 방문



첼시마켓 방문

□ 뉴욕센트럴파크(New York Central Park)

○ 개요

- 위치 : Manhattan, New York City
- 누리집(홈페이지) : <http://www.centralparknyc.org/>

○ 주요내용

- 해마다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으며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공원임. 공원 전체의 관할은 개인 비영리단체인 센트럴 파크 관리위에서 담당하며 뉴욕시와 함께 관리함.

공원은 북쪽으로 서부 110번가(West 110th Street), 남쪽으로 서부 59번가(West 59th Street), 서쪽으로 센트럴 파크 서부(Central Park West) 동쪽으로 5번가(Fifth Avenue)에 접해 있음. 공원에는 인공 호수와 연못, 몇 개의 산책로, 두 개의 아이스링크, 센트럴파크 동물원, 정원, 야생 동물 보호구역, 넓은 자연림이 있음.¹⁾

○ 방문내용

- 세계적인 도심 공원의 유지 및 관리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공원 내부를 직접 걸어보고 탐구하여 은평구 관내 공원 및 녹지관리에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의원 발의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 과 관련한 은평구 관내 보행권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였음.

1) <https://ko.wikipedia.org> 참조

○ 방문사진



센트럴파크 입구



센트럴파크 공원의자



센트럴파크 관리인 면담



센트럴파크 관리인 면담



센트럴파크 방문



센트럴파크 관리인 면담

□ 페어팩스시티 시 의회(Fairfax City council)

○ 개요

- 페어팩스시티 : 버지니아주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고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속하는 행정 중심지
- 시의회 위치 : 10455 Armstrong Street Fairfax, Virginia 22030
- 면적 : 16km² (※ 은평구 면적 29.71km²)
- 인구 : 약 24,097명(2017년 기준)
※ 백인(57.2%), 아시아인(17.3%), 히스패닉(17.1%), 흑인(5.3%)
- 누리집(홈페이지) : <https://www.fairfaxva.gov/home>
- 시장 및 의원 구성

직 위	성 명	임기	임기 만료
시장	David L. Meyer	2018-2020	2020. 7.
의원	Michael J. DeMarco	2018-2020	2020. 7.
의원	So P. Lim	2018-2020	2020. 7.
의원	Janice B. MILLER	2018-2020	2020. 7.
의원	Jennifer E. Passey	2018-2020	2020. 7.
의원	Jon R. Stehle, JR.	2018-2020	2020. 7.
의원	Sang H. YI	2018-2020	2020. 7.

○ 방문내용

- 페어팩스 시장 및 환경 업무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한 페어팩스 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향후 20년을 대비한 해당 시의 폐기물 처리 관리 정책을 청취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의회 방송 시스템을 견학하고 해당 의회의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하여 탐구하였음.

○ 방문사진



페어팩스 시티 방문 기념 촬영



페어팩스 시 시장 정책 설명회



페어팩스시 시장 정책 설명회



페어팩스 시 시장과의 질의 응답



페어팩스 시 시장과의 질의 응답



페어팩스 시 시장과의 질의 응답

□ 미국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개요

- 위치 : 12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004
- 누리집(홈페이지) : <https://www.epa.gov/>

○ 주요내용

- 환경 보호청 (EPA)은 1970년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환경법에 근거한 관련 규제를 개발하고 시행하며, 국가재정지원 또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음.
- 환경보호청은 미국 의회가 환경법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규제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관으로 미국 내의 환경 오염과 공해 방지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통일하고, 환경 대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환경 보전에 관한 행정기관임.

○ 방문내용

- 환경보호청 전시관을 방문하여 선진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원의 환경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음.

○ 방문사진



미국환경보호청 정문



미국환경보호청 내부



미국환경보호청 내부



미국환경보호청 내부

□ 주택감독관(Housing Inspector) 사무소

○ 개요

- 위치 : 6707 Old Dominion McLean VA 22101

○ 주요내용 : 석면, 라돈 가스, 납 성분 페인트 처리 방안 설명회

- 발표자 : Mr. Nicholas Defelice

Ms. Kay Gwaltney

Mr. Joshua Yeom

○ 방문내용

- 미국 주택감독관과 미국 주택의 석면, 납 성분 페인트, 라돈 가스 처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 청취 및 질의응답

○ 방문사진



주택감독관 사무소 단체 사진



석면 및 환경 관련 처리 방안 간담회



석면 및 환경 관련 처리 방안 간담회



석면 및 환경 관련 처리 방안 간담회

□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Brooklyn Bridge Park) 사무소

○ 개요

- 위치 : 99 Plymouth St, Brooklyn, NY 11201
- 누리집(홈페이지) : <https://www.brooklynbridgepark.org>

○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관리 및 디자인을 통해 사람, 자연 및 해안가를 연결하는 공간을 제공함, 바다 생물과 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 학습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

○ 방문내용

- 도시재생으로 유명한 브루클린 지역을 방문하여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도시재생 사례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으며, 브릿지 공원 관리소를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생태 공원 및 도시재생에 관한 의원의 안목을 높임.

○ 방문사진



□ 뉴욕경제개발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 개요

- 위치 : One Liberty St, New York, NY 10006
- 누리집(홈페이지) : <https://edc.nyc/>

○ 주요내용

- 설립 일 : 1991년 설립되었으며 2012년 뉴욕시 경제성장공사와 합병함
- 설립목적 : 뉴욕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이고 회복 탄력성 있는 지역사회를 육성
- CEO : James Patche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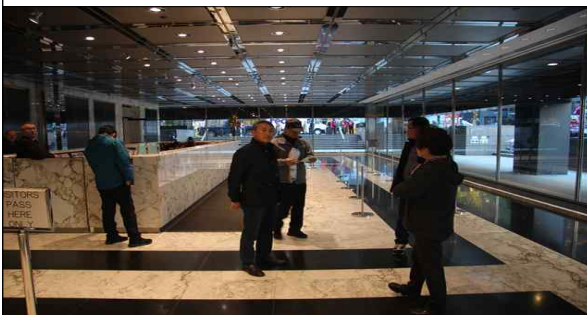
○ 방문내용

- 뉴욕경제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선진 창업 정책에 관한 내용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과 관련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및 구정 정책에 관한 안목 확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함.

○ 방문사진



뉴욕경제개발공사 정문



뉴욕경제개발공사 보안 검사 대기



뉴욕경제개발공사 보안 검사 대기

□ 더하이라인파크(The Highline Park)

○ 개요

- 위치 : 뉴욕시 맨해튼 남서부에 있는 길이 1.45마일(2.33 km)의 공원
- 누리집(홈페이지) : <https://www.thehighline.org>

○ 주요내용

- 1993년 개장한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에서 영감을 얻어, 맨해튼 의로어 웨스트 사이드에서 운행되었던 1.45마일(2.33km)의 고가 화물철도 노선을 철거하는 대신 주민들의 주도로 해당 고가에다가 꽃과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해서 공원으로 재이용한 장소임.
서울특별시에서 이 공원을 모델로 하여 서울역고가 도로를 서울로 7017로 조성하였음.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최초의 고가도로인 자성고가 공원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부산의 그린라인파크와 포항시의 Green way, 강릉시의 강릉역 지하화 유희부지에는 월화거리가 생기는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가도로와 철도 폐선부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진행 중임.²⁾

○ 방문내용

- 폐철도 시설의 성공적인 도시 공원화 사례인 하이라인 파크 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기차의 선로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레일 워크(rail walk)를 직접 걸어보며 레일의 보존 사항 및 공원 조경, 시설 현황 등을 탐구하였고, 주변의 건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도시 공원화에 대한 의원의 안목을 높였음.

2) 나무위키 (<https://namu.wiki/>) 참고

○ 방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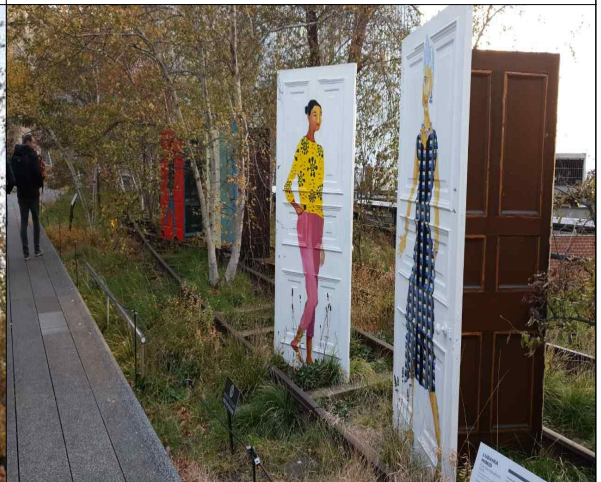
더하이라인파크 방문



더하이라인파크 방문



더하이라인파크 방문



더하이라인파크 방문



하이라인파크 방문



더하이라인파크 방문

□ 그 외 활동 및 주요 시설 시찰 및 현장 방문

허드슨 야드 베슬(HUDSON YARDS VESS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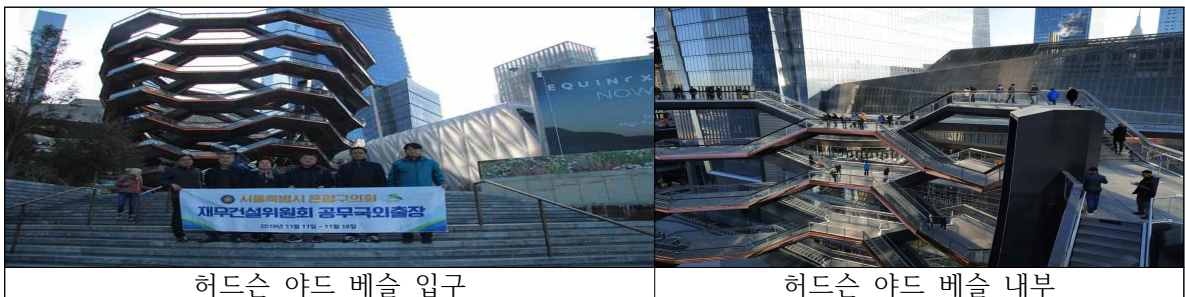
○ 개요

- 위치 : The Shops and Restaurants at Hudson Yards, New York, NY 10001
- 누리집(홈페이지) : <https://www.hudsonyardsnewyork.com/discover/vessel>

○ 주요내용

- 버려진 기차역에 생명을 불어넣은 뉴욕 [허드슨 야드] 고층 빌딩 사이에 별집 모양의 높이 46m(지상 15층 높이) 나선형 전망대, 2500개의 계단이 얹힌 형태로 영국의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하였으며, 건축비는 2억 달러(2354억원) 정도, 허드슨 야드가 보이는 전망대로 뉴욕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방문사진



「국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 「백악관(White House)」

○ 방문사진



IV

출장결과

뉴욕센트럴파크(Central Park) 및 하이라인파크(Highline Park)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남형의원

□ 개 요

- 출장장소 : 뉴욕센트럴파크(New York Central Park),
더하이라인파크(The Highline Park)
- 출장일시 : 2019. 11. 12.(화) 10:00
2019. 11. 15.(금) 13:00

□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질의) 센트럴파크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Central Park Conservancy)에서 공원 운영을 관리한다. 민간 기부 또는 기업의 후원을 통해 공원 관리 비용의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질의) 의자에 메모된 것들은 무엇인지 ?

답변) 그 의자들은 글귀는 기부자의 것이다. 7,500달러를 기부하면 글귀를 의자에 붙여주는 것이다.

질의) 센트럴파크에서는 화장실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말 화장실이 없는건지?

답변) 전혀 아니다. 현재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센트럴파크 공원 내에는 20개 가까운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다.

□ 의견 및 향후 활용방안

- 제8대 은평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의 출장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진국의 앞선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고 온다는 형식적인 출장 의식에서 벗어나 생각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출발 전 저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움을 찾기보다는 작은 것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도입하여 적용하고 도움이 되거나 응용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며 내실 있는 내용으로 다녀오자는데 모든 의원의 뜻과 방향을 잡고 재무건설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각자의 관심 사항과 토론의 자리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공원의 녹지 관련 분야와 재활용관리, 도시재생, 개발, 전통시장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 일자리 관련과 창업 관련, 지방자치제도분야 등으로 압축하고 의원 관심사별로 분리 분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지의 교통과 가이드 또한 여행사가 아닌 의원이 직접 항공권에서 현지 통역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현지 섭외 또한 현지 지인을 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출장지는 미국으로 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으로 뉴욕센트럴파크 재활용과 환경에 관련하여서는 페어팩스 시, 미국환경보호청 방문, 도시재생, 개발은 더하이라인파크와 전통시장은 첼시마켓으로 결정하였고 기타 허드슨 야드 베슬,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도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은평구의 아이들이 타구의 공원으로 체험이나 놀이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의회는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게 하였고 그 실천을 위해 전국의 우수 공원을 돌아보며 작은 그림들을 그려 가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크게 작용했던 것처럼 이번 출장도 그와 관련된 공원의 시설이나 환경 등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뉴욕센트럴파크』 땅이 넓어서인지 한눈에도 편안함을 주기는 했지만 감동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첫인상으로 다가온 공원은 비가 내린 후였고 날씨까지 쌀쌀해서인지 우리나라의 현충원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던 정보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보며 이곳의 진정한 그림을 알기 위해서는 계절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실망만을 가지고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도 했지만 역시 배울점은 이내 눈에 들어오더군요. 공원에 들어서자 길게 연결되어 있는 벤치에 의미와 활용도, 역할을 직접 알아보고,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자는 기부 형식으로 기증이 되어있어 관리비를 제외한 비용이 들지 않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고 의자에는 기부자의 이름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쓰여 있었으며, 기부자가 부모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기념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그 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엉덩이가 등받이에 편하도록 깊이 들어가 있어서인지 잠시 앉아본 느낌은 편안함 그 자체였고 그 세심함은 노숙자가 누워 있기에는 불편하게 되어있어 굳이 중간에 추가적인 시설물이 필요치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의 둘레를 펜스처럼 연결하여 잔디를 보호하는 역할과 길의 안내를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불광천 변에 의자가 부족하다는 민원의 해결책과 함께 새롭게 조성되는 벤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생각합니다.

- 『더하이라인파크』 위의 설명자료 내용처럼 철길을 공원화로 만든 세계적인 명소로 서울역의 서울로7017을 떠올리며 올라본 것은 너무나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로7017 개통식과 그 후에 야경까지 가보며 그때마다 실망을 했었는데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듯 편한 미니 숲처럼 인위적인 면이 적었고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곳 하이라인이 아닌 주변 건물들을 이용한 그곳만의 광고나 예술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조화가 바로 하이라인이라는 명소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 해보며 관공서의 건물 도색이 은평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과 불광천의 주변 건물을 이용한 이색적인 변화를 연구·시도하여 은평구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는 불광천 벚꽃 축제뿐만 아니라 응암역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 출장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해 봅니다. 과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작은 목화씨 몇 알이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를 알지만, 가끔 우리는 그 고마움의 출발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결과만이 다가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작은 비용으로 어렵게 준비하던 과정에도 웃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바쁜 일정에도 하나라도 더 보고 질문해가며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가슴에 새기며 알찬 공무국외출장에 함께해주신 강용운, 문규주, 오덕수, 신봉규, 송영창 의원님과 홍석중 전문위원님, 김민우 주임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어팩스 시 의회(Fairfax city council), 주택감독관(Housing inspector)사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강용운의원

□ 개 요

- 출장장소 : 페어팩스 시 의회(Fairfax city council)
주택감독관사무소(Housing inspector) 사무소
- 출장일시 : 2019. 11. 13.(수) 10:00
2019. 11. 14.(목) 10:00

□ 질의 및 답변 내용

질의) 최근 은평구에서도 라돈이 이슈가 되었음, 외국에서 수입된 석재 등에서 라돈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미국에서는 수입되기 전에 사전 측정 기준이 있어, 그런 사례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아직 그런 기준들이 확실치 않아 측정이 안 되어 그런 것 같다.

질의) 만약 라돈 측정되었을 때 그것을 배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제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환풍이 제일 효과적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님,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요구사항으로 할 것인지는 판단해봐야 할 것.

질의) 물속에서도 라돈이 검출되는지?

답변) 도시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외곽에 나가면 농사 짓는 데가 많음. 그런 곳에 있는 샘물 같은 곳에서는 지하의 지반 때문에 발견될 수도 있음.

질의)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를 만들 때 시멘트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아파트 벽면에 라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답변) 한국은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고 알고 있지만, 미국은 단독주택이 많음. 여기는 거의 개인 집이다 보니까 개인들은 측정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한국은 건물 전체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해야할 것 같음.

질의) 석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 석면은 폐질환에 영향을 줌, 미국에서는 사이딩이라는 것을 사용함.

건물 겉에다가 붙여서 건물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 재질이 예전에는 석면재질을 많이 썼음. 그냥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가령 뜯어낸다고든지 그러면 벽면에 붙어있던 석면가루가 날리게 됨. 집을 허물 때, 고칠 때, 폐건축 자제가 나오면 버리는 곳이 따로 있음. 석면 자재를 버리는 곳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해당 지역에만 가서 버리고 테스트를 받아야 함.

질의) 집을 사고팔 때 석면표시를 하도록 법률적 장치가 있나요?

답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놓을 때 반드시 납 성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쓰게 되어 있음, 만약 작성하지 않았을 때 새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큰 문제가 됨, 1978년 이전에 지은 집들은 납성분이 들어간 페인트를 많이 썼음.

질의) 한국에는 납성분 페인트는 아직 이슈화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납성분 페인트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 미국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음, 보통 집들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생각보다 수명이 굉장히 길어서 100년 이상된 집들도 많음. 납 성분 페인트도 그냥 놔두면 별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긁든가, 떼어내면 거기서 문제가 생김.

질의) 페어팩스 시의 대표적인 환경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 우리 시는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3가지 환경정책 집중하고 있음. 고형 폐기물(Solid waste), 재활용, 퇴비화 서비스이며, 각 정책은 (중략) 시의 최종목표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의 70%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질의) 미국은 기본적으로 하수관이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물 저장고를 이용해 물을 모아두며, 천천히 하천으로 내려보내고 있으며, 수도관(관로) 설치를 고려 중임.

□ 의견 및 향후 활용방안

○ 「페어팩스 시 의회」

버지니아주에 속한 페어팩스 시는 인구는 24,000명 정도이며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와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8학군이라는 곳인데 미국의 8학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수준이 아주 높은 곳이다. 미국의 국민소득이 62,000달러 정도인데 이곳은 1인당 평균 소득이 12만 달러 정도로 소득수준이 전국의 3위안에 들 정도로 높다고 한다. 페어팩스 시 방문에서는 한인 출신 시의원인 임소정 의원의 도움으로 DAVID L. MEYER 시장과 미팅을 할 수 있었다. 임소정 의원은 1976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인으로서 올해 선거를 통해서 시의원에 당선된 분이며 영어와 한국말이 유창하다.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고형폐기물, 재활용, 퇴비화 서비스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의 마지막 목표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의 7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으며, 땅에서 나오는 잔디, 낙엽도 쓰레기로 생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도 재생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분류하여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며 나머지는 매립을 한다고 한다. 재활용 분리에 있어서는 대도시나 소도시나 한국이 더 세분하게 분리가 되는 것 같다. 미국의 공공시설을 다니면서 느낀 특징은 공공장소(호텔이나 식당)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가 혼합으로 버려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특성상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매립하기가 용이하다는 생각이다. 쓰레기 분리 방식과 처리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 「주택감독관 사무소」

미국 주택 감독관 사무소. 올해 한국에서도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라돈(Radon gas)』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였지만 석면과 납성분 페인트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돈은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주로 비흡연자 중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라돈 가스라는 충격적인 설명을 들었다 우리나라 무색 무취 부패한 생성물은 가정과 건물 밑의 토양에서 가스로 형성되며 가스는 집과 건물 내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라돈 가스는 토양을 통해 이로 올라 가면서 균열, 건축 조인트 겹, 펌프 및 파이프 / 와이어 등에 침입하여 주변을 통해 주택과 건물로 이동한다. 라돈가스 검출수준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건물의 가장 낮은 지역에서 가장 검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EPA와 미국 외과 의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라돈 가스 노출로 인해 매년 21,000명의 폐암 사망자가 발생하고, 대책으로 EPA는 모든 가정에서 라돈 가스를 측정 테스트 할 것을 권장한다고 한다. 4 pc/ L (리터 당 피코-큐리 : 방사성 제품에 대한 과학적 측정치)

전문가는 Radon Defense에서 라돈 가스를 측정하여 라돈 처리를 전문화 하여 인증 하고 단기 및 장기 테스트는 주택 또는 건물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가정의 수준이 EPA의 권장 조치 수준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올바르게 설치된 완화 시스템으로 라돈 수준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미 환경청(EPA)은 1995년이래로 라돈 관련 서비스 (측정,저감)제공자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프로그램(Radon Proficiency Prigrams)의 시행을 통해 자격증 제도가 보편화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지역별 라돈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강좌를 개설하여 왔다고 한다. 이후 EPA에서는 RPP를 폐지하고, 대신 비영리 민간기구에 위탁을 하면서, NRPP가 기존의 RPP 프로그램과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 인증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NRPP자격증을 인정하며, 라돈농도가 특히 높은 일부 주(NJ, PA 등)에서는 NRPP자격증 이외에, 주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자격증 시험 통과를 의무화하고 있다.

『석면 (Asbestos)』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뜻으로 100만 년 전, 화산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화성암의 일종입니다. 석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면은 주로 지붕재, 벽면재, 단열 및 보온재로서 건축자재에 사용되었고, 브레이크 라이닝, 가스켓 등의 원료로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손꼽히며 2006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시멘트와 자동차 부품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³⁾ (한국석면관리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미국은 세계에서 석면을 가장 많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나라로 1970년대부터 보건 위기라 할 정도로 심각한 석면 피해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해마다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석면 관련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2030년이면 미국인 50만 명이 공식적으로 ‘석면’ 때문에 사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일본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7명이 악성중피종으로 보고되고 있고 2025년까지 10만 3000명 정도의 중피종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악성중피종이란 석면노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석면노출로 인

3) 한국석면관리연구원 (<http://www.kaml.co.kr/>) 참조

한 질환은 크게 흉막질환과 폐질환으로 구분되는데, 악성중피종은 흉막질환에 해당됩니다.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으로 잠복기는 10~40년인데 진단이 어려워 아직까지 확립된 치료법이 없습니다.

호주의 경우악성중피종 환자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인구 100만명당 무려 40명의 악성중피종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2015년까지 모두 3만 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해마다 석면에 의한 사망자가 2000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연간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석면질환으로 조기 은퇴한 노동자들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국가 예산과 사회안전기금에서 공공재원을 조달한다는 특별대책을 세우고 1997년 석면 수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호주와 프랑스의 석면피해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석면에 희생됐는지는 정확한 조사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연간 전 세계 노동자 중 10만 명이 석면관련 질환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경고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1억2500만 명이 직업상 석면에 노출되고 이 가운데 9만 명이 해마다 숨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⁴⁾ (한국석면관리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외국과 같이 석면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석면이 폐질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주로 사이딩에서 검출이 되는데 사이딩이 뭐냐 하면 길에다가 무엇을 붙여 놓아서 하는 것인데 그 재질이 예전에는 석면 재질을 많이 썼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건축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석면재질이 있는 것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가령 뜯어낸다고 든지 그러면 석면 먼지가 일어나고 사람에게 피해가 생긴다고 한다.

4) 한국석면관리연구원 (<http://www.kaml.co.kr/>) 참조

그리고 지붕 올리는 자재에 코팅하듯이 하는데 그 재질이 석면이 많다고 한다. 그런 자재들이 큰 문제고 석면재질을 처리할 때에는 이것도 반드시 자격증이 되어있는 사람만 처리 할수 있다고 한다.

또 집을 허문다든가 고칠 때 폐건축자재가 나오면 버리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카운티라고 해서 도보다는 작고 시보다는 큰 광역구역이 보통 하나씩 있는데 그리로 갖다가 버리면 되는데 이 석면 자재가 있는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해당된 지역에만 가서 버린 후 반드시 테스트를 모두 받아야 인정이 된다고 한다.

주로 석면이 검출 되는 곳은 노후된 가정집, 노후된 건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라고 한다. 예전 한국에서도 석면을 많이 사용한 적이 있는데 슬래트지붕 자재인데 옛날에는 석면이 뭔지 잘 모르니 거기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한 적도 있다.

석면 같은 경우 아이들이 면역성이 약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살아보면 법이나 절차들이 확실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고 안 따르면 벌금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한다. 한국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규정 조례부터 다시 바꾸어야 하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한다.

『납성분페인트(Lead Based Painting)』 미국의 납성분 페인트 대책 현황 ‘연방주택도시개발국’ (HUD)이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용 주택에 사용됐을 수 있는 납성분 페인트와 관련, 보다 강화된 새 규정을 공개했다. HUD의 새 규정에 따르면 정부 지원 주택 거주 청소년의 혈중 납성분 농도 제한 기준이 기존 혈액 1데시리터 당 약 20마이크로그램에서 5마이크로그램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된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HUD가 공개한 새 규정은 앞으로 60일간 공청회를 거치게 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HUD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6세미만 아동의 혈중 납성분 농도가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건물주는 HUD측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HUD는 즉시 납성분 페인트 사용 여부 등 환경 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에서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거나 토양에서 납성분이 검출되면 건물주는 유해 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납성분 페인트와 관련된 HUD의 새 규정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미 제정, 실시중인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진 것이다.

주택에 납성분 페인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1978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효하다. 1978년 이전 건축된 주택에는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 시 판매자 측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HUD측에 따르면 HUD 지원 저소득층 주택 중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약 290만채에 달한다.

이중 약 49만 채의 주택에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6세만 아동 거주 주택 중 약 12만8,000채에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납중독에 따른 증상은 여러 가지인데 주로 정신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많다.

혈중 납성분 농도가 높을수록 조울증 등 정신 질환 위험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많다. 청소년의 경우 납중독에 노출될 경우 두뇌 개발 등에 영향을 받는다. 혈중 납성분 농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SAT 점수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납성분 페인트는 한국의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문제화 하는 사람도 극소수지만 미국의 경우 1978년 이전에 지은 집들에 대해서 납성분이 들어간 페인트를 많이 썼다고 한다. 그래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집이 1978년 이전에 지은 집들은 그 집주인이 반드시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또 계약 시에 납성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100% 없다는 말을 한다. 석면도 마찬가지로 납성분이 들어간 페인트도 그냥 놔두면 상관이 없다는데. 이것을 긁어낸다든가, 떼낸다든가 건물을 허문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한다.

납성분 페인트 피해 방지 방법은 기존 칠 한 곳에 덧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요즘 나온 페인트로 다시 덧칠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요즘은 집계약 시 법적으로 반드시 집주인이 문제가 납 페인트가 의무적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며 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피해사례가 없다 보니 대책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 2019년 은평구 재무건설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 떠나는 첫날 기침, 콧물, 두통, 재채기 감기 4종 세트가 출발 전부터 나를 괴롭히더니 급기야는 코피까지 터진다. 사상 최악의 컨디션 속에 국외출장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 정도다. 하지만 어찌랴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가는 공무국외 출장인데 내가 못 가면 나머지 일행들도 모두 못 가는 상황이라니 할 수 없이 출국길에 올랐다.

먼저 도착한 곳은 중국 북경 공항 출장 경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행선지는 미국이지만 중국을 경유 한다. 3시간을 기다려 뉴욕행 환승 후 약 1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뉴욕 첫 번째 행선지인 첼시마켓으로 향했다. 「첼시마켓」은 연간 600만명이 찾을 정도로 뉴욕에서는 인기가 좋다고 한다. 아주 오래된 과자공장 건물을 구글에서 매입하여 창고형으로 리모델링 하여 의류, 와인, 제과점, 악세사리 등 다양한 상점들을 유치하여 영업을 하는 것 같았다.

눈에 띄는 여러 상점을 둘러 보던 중 들린 해물마켓 킹크랩등 다양한 해산물을 팔고 있었는데 크랩은 즉석요리를 해주고 간단한 음료나

맥주를 함께 판매하는 곳이었다. 해산물 마켓을 한바퀴 돌아보니 초밥 굴, 연어 등등 수산물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너무 잘 정돈된 많은 생선 가게를 보아서인지 가게 셋팅과 신선도 가격면에서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색다른 점은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나면 공동 관리인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이었다.

우리 재래시장에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전반적으로는 첼시마켓의 해물상점은 해물의 유통, 전시, 디테일 부분은 한국에 와서 한 수 배워야겠다는 생각이다.

「센트럴파크」 1840년 뉴욕이 급속한 도시화 되자 시에서는 대규모 공원을 짓기로 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원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머지 않아 뉴욕시가 빌딩 숲으로 바뀔 것을 예측하여 미래를 내다 본 대규모 공원설계이며 뉴욕에서 최대의 녹지공간이고 다양성을 함께 갖춘 공원을 추진하여 1856년 완공된 도시 친화적인 공원이다. 완공 후 연간 4,000 만명의 내외국인이 사계절 찾아온다니 뉴욕시의 선견지명에 다시 한번 놀란다.

또 한가지 특색 있는 것은 그 넓은 공원에 설치된 벤치이다. 벤치마다 글씨가 쓰여 있어 자세히 보니 기부자의 이름이다. 벤치 하나에 7,500 달러를 기부하면 기부자가 원하는 글씨를 금속판에 새겨 벤치에 붙여 주는 방식으로 국내에도 접목을 하여야 할 아이템으로 보인다. 센트럴파크 공원 벤치가 9000여 개인데 3000개 가까이가 기부를 통해서 설치된다 하니 미국인들의 기부 문화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새삼 생각해 본다.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Brooklyn Bridge Park)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문규주의원

□ 개 요

- 출장장소 :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Brooklyn Bridge Park)
- 출사일시 : 2019. 11. 15.(금) 16:00

□ 의견 및 향후 활용방안

- 은평구의회의 국외공무출장은 해마다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어느 지자체 의원의 해외 공무 연수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큰 지탄을 받으면서 더욱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국가경쟁력과 국제협력이 강화되며 사람과 물자, 기술, 문화, 예술 등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은 꼭 필요하며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우리 은평구의회는 다시 한번 의원들의 국외출장은 투명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례도 바꾸고 심사위원들도 새로 선출하였다. 물론 선진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나 모범적인 발전사례 등은 SNS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할 수도 있겠지만, 백문불여일견이란 고사성어와 같이 소통을 통하여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은 결국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지식이 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우리 지역구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다녀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나의 생각이다.

이번 국외공무출장을 두고 재무건설 위원회에서도 어디를 방문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국외출장은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가고 싶지 않았다.

재무건설 위원장은 국외출장은 의원들에게 주어진 의정활동의 일부인데 왜 빠지려고 하느냐는 질책도 있었다. 많은 고민 끝에 처음은 방문지를 중국으로 정하였으나,

다수의 의원들은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선진비교 시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으며, 물론 중국의 경제성장과 기술성장이 도시마다 차이가 있어서 배울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의원의 이견과 생각이 달라 날짜까지 정해 놓았지만 보류되고 말았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한번 다녀온 경험으로 선택한 나라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나라 미국이었다. 물론 2년 전인 2017년 9월에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었다.

나는 7대 의회의 해외연수 경험을 통해 그만큼 성숙해지고 지식적으로 풍성해 졌으며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건설위원회의 업무에 적합한가를 의원들이 함께 모여 미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여러 기관을 선정하였고, 이번 국외출장의 목적과 적정성, 기간 방문의 필요성에 대해 방문지에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방문 의사를 타진하였고, 그 결과로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두 곳으로 공무 출장을 기획하게 되었다.

우리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처음 계획 단계부터 수차례의 미팅을 통해 어디를 방문할 것인가? 방문지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에 대해 많은 논의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선정한 일정과 방문지를 꼼꼼히 점검하였다.

○ 『브루클린 덤보(Dumbo)』 맨하튼에서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다보면 다리아래 (Down Under the Manhattan the Bridge Overpass) 브루클린 덤보(Dumbo)가 있다. 우리에게는 무한도전을 통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나는 오래전 보았던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라는 잔잔한 장면을 통해 알고 있었다.

브루클린’ 은 네덜란드 마을인(Breukelen)에서 유래되었으며 뉴욕 5개 지역(The Bronx, Queens, Manhattan, Brooklyn, Staten Island,)가운데 가장 안정된 지역 중 하나이다. 브루클린은 뉴욕의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로, 260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봄비는 맨해튼보다 브루클린이 조용하고 편안함을 주는 곳이다. 20여 년 전 처음 브루클린을 방문했을 때 받은 인상은 상업과 공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주거 지역으로 기억한다.

무엇보다 브루클린 브리지를 건너 맨해튼으로 돌아가는 동안 놀라운 경치를 느낄 수도 있다. 폴턴 페리 부두(Fulton Ferry Pier) 위에 지어진 브루클린 브리지는 1869년부터 1883년까지 14년에 걸쳐 지어진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철제 교각 다리이다. 준공 당시 세계에서 최장의 현수교(1883년 ~ 1903년) 이며 지금도 그 명성이 있다. 한동안 이 다리는 유일하게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뉴욕 스카이라인의 멋진 경치를 느끼고자 이 다리를 건너곤 한다. 처음 이 다리는 존 오거스트 뢰블링(John August Roebling)에 의해 설계되었는데 그는 공사 도중에 사고로 사망한다. 그의 사망 이후 워싱턴 뢰블링(Washington Roebling)이 넘겨 졌으나 그 역시 사고를 당하면서 그의 부인인 에밀리 뢰블링(Emily Warren Roebling)의 도움으로 공사를 이어갔다.

부인은 공사 인부들의 소통을 도왔고 14년의 공사기간 동안 27명의 사람이 공사 도중 사망하였다. 1883년 5월 24일, 브루클린 브리지가 공식적으로 오픈하였으나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소문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1년 후 서커스맨인 P.T. Barnum이 21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다리를 건너 다리의 튼튼함을 증명하기도 했다.

다리를 건설할 당시 1천 9백만 달러가 들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이 금액은 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은 일 평균 12만 대의 자동차와 4천여명의 보행자, 그리고 2,600명의 자전거 라이더들이 브루클린 브리지를 건너고 있다. 은평구와 브루클린의 공통적 가치는 무엇일까?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 연결할까? 무엇을 접목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였다.

- 경비의 한계와 경비 절감을 위하여 북경을 경유하여 장시간의 비행시간으로 뉴욕공항에 도착하였다. 첫날은 과거의 비스킷 공장으로 운영되다가 방치되어 황폐한 건물에서 새롭게 재탄생한 첼시마켓을 방문하였다.

『첼시마켓』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며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명품시장으로 거듭나며 작지만 강한 첼시마켓(Chelsea Market)이 첫 번째 방문지였다.

첼시시장은 40여 점포들로 이뤄져 있고 유기농 채소와 과일 및 신선한 해산물이 최고 인기품목이며 델리 푸드(Delhi food)와 레스토랑이 늘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시장 안의 상점들은 역사적 배경, 로고, 취급 상품, 인테리어 등의 요소요소가 하나의 컨셉으로 이뤄져 있으며 멋스러움과 제반 구조물이 100년도 더 된 옛것은 클래식하고 앤티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옛 과자공장 시절 사용했던 긴 파이프 라인과 붉은색 벽돌이 조화를

이뤄 멋진 갤러리 같고, 또 형형색색의 조명 아래 있는 폭포와 무게감을 주는 돌 벤치가 예술성과 중후감마저 느끼게 한다. 더구나 시계가 달려있는 아치형 통로를 지나다보면 마치 미술관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기념품, 선물용품 판매점인 첼시마켓 바스켓과 팻위치 베이커리, 랍스터 플레이스, 등이 대표적 상점들이 있으며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상점(핵점포)의 높은 명성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첼시마켓에는 투어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가 있지만 그 날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을 뒤로했다. 또 요일별로 대상을 달리하는 독서·댄서·음악·영화 동우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각종 전시회도 열린다고 한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 첼시마켓을 보고 느낀점은 우리의 전통시장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접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나아가 첼시마켓은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의 SNS채널을 운영하는 등 시장 광고·홍보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상품과 세일 상품은 물론 시장에서 전개되는 모든 일들을 영상으로 담아 보내고 있다.

요컨대 첼시시장은 유명 상점·맛집, 신선도 높은 식재료, 다양하고 유익한 이벤트·프로그램, 상인들의 넓고 장기적인 안목, 적극적인 광고 홍보, 첼시시장만의 럭셔리한 분위기 등을 갖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수많은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또 소규모의 첼시시장을 세계적인 명품시장으로 우뚝 서게 만든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나라 상인 지도자, 공무원, 전문가들이 꼭 배워야 할 대목이다. 둘째 날은 뉴욕 중심의 허파기능을 하

는 「센트럴 파크 공원」을 방문 하였다. 셋째 날은 워싱턴으로 이동하여 페어팩스 시의 방문을 하게 되었고, David L Meyer 페어팩스 시장과도 간담회를 통하여 미국 선진의회와 운영시스템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었고, 그 후로 미국 환경청을 방문하였다.

넷째 날은 「주택감독관 사무소」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슈화가 되기 시작한 라돈(Radon Gas), 석면(Asbestos), 납성분 페인트 처리방법과 과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다섯째 날은 허드슨 야드 베슬, 뉴욕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지역의 덤보(Dumbo) (Down Under the Manhattan the Bridge Overpass)와 하이라인 파크를 방문하였다.

- 『하이라인파크』는 가장 미국다운 도시 뉴욕의 원주민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뉴욕이라는 도시가 미국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가 되기까지 어둡고 낡은 부정적 부분을 상처가 아닌 자원으로 승화시킨 여러 공동체의 협치가 이룬 대표적 사례이다. 뉴욕이란 도시는 지금도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19세기 중반부터 상업 도시 뉴욕은 커지는 덩치를 감당하기 버거웠다. 도로가 급하게 생겨나고 철도가 생겼지만 죽음의 도시로 불릴 만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뉴욕시는 1934년 건물 10층 높이의 고가철도를 만들었고 우유나 고기 등 1차 가공식품을 도심으로 운송하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과 함께 도시의 랜드마크였던 고가철도가 현재 하이라인 파크의 과거 모습이다. 이 고가철도는 선진화 산업과 도로의 변화로 차츰 외면을 받다가 1980년 결국 50여 년의 생을 마감하며 사망 선고를 받게되고 사람들에게 버려진다.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이

곳을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불씨가 되어 고가 위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도시재생의 성공적 사례로 연평균 500만 명이 다녀가는 자타가 인정하는 뉴욕의 명물이 되었다. 도시의 쓸모없이 버려진 거대한 철로는 심각한 실업난과 범죄율 상승이라는 배경과 맞물려 도시를 어둡고 음침하게 만들었다. 블롬버그 시장을 필두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도시를 전면 물갈이하고 싶어했고 흉물스러운 고가철로는 당연히 철거 1순위였다.

그러나 단 두 명의 시민은 이를 반대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폐쇄된 기차길을 시민의 장소로 만들자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들의 지속적인 설득과 버려진 철로 트랙을 따라 자유롭게 피어나는 자연의 생명력은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지금의 공원을 시민의 품에 안겨 주게 된다. 운영비의 97%가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 끝으로 이번 출장 또한 지난 연수와 마찬가지로 사명감을 갖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 많이 방문 지역을 구석구석 살폈다. Central Park 공원과 Highline Park을 돌아보면서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 구와의 차이를 배우려 노력했다.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성과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국외공무출장은 전문성과 식견을 높혀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한다.

가서 보고 온 것을 무엇을 어떻게 반영하고 무엇을 만들었냐고 질문한다면 우리와 다른 제도나 다른 문화, 다른 시스템에서 그것을 바로 적용시키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고, 듣고, 느낀 체험을 통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교과서로 삼고 우리 은평구의 실정에 맞게 잘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주춧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첼시마켓 (Chelsea Market)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오덕수의원

□ 개 요

- 출장장소 : 첼시마켓(Chelsea Market)
- 출장일시 : 2019. 11. 11.(월) 16:00

□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질의) 시장 내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디자인을 관리하는 특별한 방법이있는지?

답변) 첼시마켓은 “눈에 띄는 공간, 창의적인 공간”을 만드려 노력했다. 현재 이 건물은 1890년대 과자 공장 건물이였다.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짓는 대신 예전의 것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지역 주민들도 이 디자인을 너무 좋아한다.

질의) 평일 월요일 현시간에도 방문객이 엄청 많은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답변) 상품의 품질이 훌륭하고 가격이 싸게 가장 큰 경쟁력이다. 그리고 근처에 하이라인파크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첼시마켓을 많이 방문한다.

질의) 첼시마켓 내 점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기존 점포와 차별성을 가지려 노력한다.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해 각 점포 경쟁력을 갖췄으며, 마켓의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질의) 첼시마켓의 홍보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연결망을 활용하여 시장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신상품과 할인 품목 등의 정보와 시장 내 주요 내용 등을 영상으로 담아 보내고 있다.

□ 의견 및 향후 활용방안

- 장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뉴욕공항, 비행의 피로를 풀 겨를도 없이 뉴욕에 위치한 첼시마켓으로 향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창의적 도시재생 사례로 꼽히는 첼시마켓은 예전 황폐했던 과자 공장지대에 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 원래 있던 공간을 살리고 매장 내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명한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라고 하여 꼭 방문해보고 싶었던 장소였다.

우선 입구를 지나 매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을 보며 한번 놀랐다. 서울의 명동거리를 연상시키는 수많은 인파는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무엇이 이토록 많은 사람을 이곳에 오도록 하는 것일까? 우선 다양한 매장과 식품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의 붉은 벽돌에 벽화를 새겨넣어 하나의 갤러리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깔끔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지하에 마련된 공용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었다.

마켓 내 매장 이정표의 디자인도 건물 분위기에 조화롭게 어울려져 있었다. 상점은 식료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매장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었다.

- 은평구 관내에도 연서시장 등 12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연신내 상점가 등 2개소의 상점가 있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장소가 아름답고 쾌적하고 깨끗하다면 일상에 지친 구민들에게 일종의 해방된 느낌의 쇼핑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평구 관내 디자인 및 경관 사업의 영역을 전통시장에

적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이제는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장소의 개념을 떠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내 전통시장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문화적 콘텐츠를 도입하고 공공디자인과 연계하여 특화된 거리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한다면 외국관광객을 포함한 젊은 소비자층이 전통시장에 자주 방문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뉴욕경제개발공사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신봉규의원

□ 개 요

- 출장장소 : 뉴욕경제개발공사
- 출장일시 : 2019. 11. 15.(금) 10:00
- 뉴욕경제개발공사(NYCEDC)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은평구에 적용 가능한 선진 정책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주요 논의 및 점검 사항

- 뉴욕경제개발공사의 창업프로그램
- 창업 지원 관련 정책
- 창업과 도시발전을 위해 NYCEDC의 정책 개념

□ 질의 및 답변 내용

질의) 뉴욕경제개발공사는 어떤 곳이며 설립 취지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뉴욕은 세계 경제 강국인 미국의 여러 도시 중에서도 상업 수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런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리더로써 상업, 예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시험하고 구현해 낼 수 있는 곳이 뉴욕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뉴욕시의 의지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려움, 따라서 뉴욕시를 더욱 활기 넘치는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 지속하기 위해 공공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NYCEDC임. 특히 NYCEDC는 뉴욕시의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이용, 인적자본의 개발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임. 이를 바탕으로 도시 경제를 주도하고 생명과학 및 건강관리 산업, 제조, 패션 등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산업 영역 확대를 이루고자 한다.

질의) NYCEDC의 주요 사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답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도시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음. 이런 양질의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육성하여 뉴욕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뉴욕시의 공공자산을 이용한 도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직접적인 창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음. 창업의 어려움을 NYCEDC가 해결해 주거나 방법을 제안해 줌으로써 쉬운 창업을 통해 뉴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질의)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 Technology, Life science and healthcare, Industrial, Fashion 분야로 나누어 새로운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다. 특징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미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가상증강현실, 사이버 보안, 암호화폐 등과 같이 미래 시대를 선도하고 꼭 필요한 분야와 전자보건 시장, 생명과학 분야와 같이 인간 수명 연장을 대비한 산업에 관해서도 선도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YCEDC의 웹사이트에도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질의) 왜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었나?

답변) 미국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서 세계 리더로서의 자부심이 높다. 미국 국민들 역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에 관한 관심도 높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뉴욕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욕구를 충족하며 뉴욕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선진 기술에 대해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도 뉴욕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또한 기존의 산업에서도 새롭게 기술개발을 하려는 창업자에게도 복합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 산업에 대해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질의) 창업프로그램의 주도는 NTCEDC에서 직접 하는가?

답변) NYCEDC는 뉴욕시장이 회장을 포함하여 7명을 임명하고 시의장이 10명을 추가로 선임하여 구성하며 뉴욕시장이 승인한 사람 중에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모든 결정은 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내용에 대해서도 NYCEDC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창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부서와의 자료를 공유하고 자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직접 결정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

질의) 뉴욕시와 시민들은 창업과 관련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답변) 오늘날의 선도적인 도시발전과 경제발전의 대부분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민이 보스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및 워싱턴DC를 합친 것 이상의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도 가장 다양하다. 뉴욕시 전역에서 8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 사업체 소유자의 50%가 이민자이다. 이처럼 뉴욕은 다양한 생각과 여러 문화의 교류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다른 생각의 리더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창조적인 창업을 희망하며 도전하고 있다.

질의) 창업과 도시발전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뉴욕시는 1만 개 이상의 세계적인 창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는 1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래 기술 분야를 세계에서 가장 선도하며 포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컴퓨터 과학 이니셔티브는 도시의 1,700개의 공립 학교 중 하나에 컴퓨터 과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Tech Talent Pipeline은 모든 배경의 뉴욕 주민들을 주요 기업의 주문형 직책과 연결한다.

질의) 창업프로그램을 위한 NYCEDC의 지원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나?

답변) 종합적인 방향을 요약하자면 NYCEDC는 부동산 및 금융과 같은 기존 산업의 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동시에 뉴욕시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확신을 주는 정책으로 자부심을 이어갈 것이다. 뉴욕시는 세계 경제의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금융과 관련된 회사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앞서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NYCEDC 이사회를 비롯한 분야별 책임자들은 뉴욕시가 세계 무한경쟁 경제시장 속에서 금융 산업 분야의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시는 세계 미금융 기술 (FinTech)과 은행법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더욱 선도적 지위의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앞서 이야기 드렸던 핵심 사업 부분에서 선도적 정책이자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 것임, 이런 기본 정책 방향을 통해 도시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 100개 이상의 사이버 회사와 6,000개의 관련 일자리가 있는 산업의 글로벌 자본이 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을 통한 금융, 개인정보 등의 보안 위협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은 금융 기관에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는 금융뿐만 아니라 부동산 부분에서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맨하탄의 미드타운, 미드타운사우스, 로어 맨하탄과 같은 주요 비즈니스 지구에 4억 5천만 평방 피트의 사무실 공간이 있으며 비즈니스 지역의 사무실 공간의 1/4 이상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Wall Street는 Citigroup 에서 Credit Suisse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 은행이 위치하고 있다.

질의) 앞으로 창업을 통한 뉴욕시 발전을 위해 NYCEDC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부동산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미래의 업무를 위한 사무실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수요가 많은 사무실의 유형이 바뀌고 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20세기 아르데코 마천루가 이제 유행을 벗어났다. 대신 세입자는 개방형 레이아웃, 공용 공간 및 편의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건물을 원한다.

답변) 2025년까지 필요한 추가 6000만 평방 피트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스트 미드타운 중심 상업 지구를 포함하여 도시의 넓은 지역을 재구성해 갈 것임. 이 전략의 효과는 몇몇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JP Morgan 은 Park Avenue에 250만 평방 피트 규모의 세계적 수준의 본사를 건설할 계획이고, 부동산 개척자인 SL 그린은 수십 년 동안 도시에서 가장 기대되는 고층 빌딩 중 하나인 원 밴더빌트 (One Vanderbilt)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다. 다른 의견으로는 이스트 미드 타운에는 공간을 원하지 않는 많은 기업가들이 있다. 차라리 윌리엄스 버그의 개조 된 롱 아일랜드 시티 창고 또는 공동 작업 공간이 있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전통적으로 주거 지역의 일부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Rockaway 반도의 가장자리에 있는 공동체인 Far Rockaway 다운 타운에 대한 지역 변경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에는 또한 새로운 상업 공간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2억 2,800만 달러의 약속도 포함되어있다. 이스트 미드타운 및 다운타운 파락커웨이와 같은 지역은 도시가 번창해야 할 부동산을 만들고 있다. 뉴욕시 내부의 공간 활용을 통해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창업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뉴욕시가 갖고 있는 세계적 리더 도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방문 소감 및 향후 활용방안

- 은평구는 자체적 생산 인프라가 타자치구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재정자립도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최하위권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런 지역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려 은평구 전체 주민 복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뉴욕시와 은평구는 인구나 면적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뉴욕경제개발공사 방문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정책(창업)에 관한 기본 생각의 자세인 것이다. 은평구 지역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래 시대 요구되는 사안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결합한 정책 방향 설정의 기본 인식이 은평구에도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규모의 차이만으로 사업의 성패를 논하기 어려운 것은 이미 세계에서 성공한 여러 도시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책을 입안하는 입안 기관과 그것을 접하고 이용하는 시민이 함께 소통할 때 지역경제도 활성화도 최대의 효과를 낼 것이고 은평구의 미래 시대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

은평구도 이제는 미래 시대 은평구의 생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정 정책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지금껏 은평구는 소비와 주거의 영역을 중심으로 외부 경제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 때문에 자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책을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냉철히 자체적인 생산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정 정책으로 은평형 창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은평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갈지도 미래 시대를 예견하고 특화된 정책들에 집중투자해야 할 것이다. 은평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시대 은평을 위해 최근 은평구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에 관한 기본 조례」(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 대표발의)는 은평형 창업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시작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창업 관련 조례를 만든 것만으로는 미래 시대에서 은평구의 발전된 지역경제와 사회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은평구가 가진 강점들과 미래 시대 요구사항을 함께 고민하여 창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은평구에서도 창업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함께 좋은 프로그램도 고민해서 제안하는 과정을 지속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2020년에 은평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뉴욕경제개발 공사의 정책 입안 기본과 같은 은평형 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페어팩스 시 의회(Fairfax city council)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송영창의원

□ 출장개요

- 출 장 국 : 미국(뉴욕, 워싱턴)
- 출장기간 : 2019.11.11.(월) ~ 11.18.(월) - [6박8일]
- 출장목적 : 미국의 지방의회와 도시개발,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의 도출을 위한 판단에 필요한 견문을 얻어 의정활동에 접목하고자 하였음.

□ 질의 및 답변내용

질의) 미국의 정부 형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답변) 지방정부, 주(state)정부, 국가정부, 3단계의 정부로 구성되어 있음.

질의) 회의실 내에 카메라가 많은데 회의 진행은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인지 ?

답변) 회의 시마다 지역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며, 전부 녹화하여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음.

질의) 회의장이 인상적입니다. 앞에 좌석이 많은데 주민들이 앉는 좌석인지 공무원들이 앉는 좌석인지?

답변) 말씀하신 좌석은 모두 시민들을 위한 좌석이며, 제가 서서 발표하고 있는 이 발언대도 시민을 위한 발언대임.

질의) 시민들이 회의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는지? 예를 들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가로등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건지?

답변) 회의장 안에서 시민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말할 수 있음.

질의) 특정 문제만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다. 그 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한 달에 한 번씩 9명의 위원들은 모임을 하고 그 모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음.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출장내용(주요업무 수행사항)

- 『페어팩스 시 의회(Fairfax City Council)』 David L.Meyer 페어팩스 시장과 Stefanie Kupka, Leed 페어팩스 환경 담당자의 설명으로 페어팩스 시의 지방자치제도와 환경 관련 시설 및 처리 관리 정책 등에 대하여 설명과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10년 전부터 물, 공기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통하여 미국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을 우리 손자들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페어팩스 시장의 말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였음.
 - 페어팩스 시의 하천의 변화 과정과 비슷한 은평구 불광천의 변화 과정에 대한 사례를 공유, 더불어 리사이클링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실행 방향에 대하여 상호 교류함.
 - 의회 방청객 공간, 의원 자리배치, 회의진행을 위한 공무원석 공간 배치를 바탕으로 의회 의사 진행 방식, 온라인 및 지역방송 생방송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5년 전의 의회 운영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하며, 의회에서 주민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의회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

- 『더하이라인파크(The Highline Park)』 미국 뉴욕 맨해튼 시내에 1.45마일(2.33km)의 공원으로고가 화물철도 노선을 철거하는 대신 꽃과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해서 공원으로 재이용하고 있다.
 - 원래 장소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철로에 자생한 160여 종의 야생초를 식재, 야생화 필드의 생태 공원으로 디자인.
 - ‘단순하게 야생 그대로 조용히 천천히’ 슬로건에 맞게 휴식과 함께 주위 풍광(오래된 건축물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 등)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공원 내 철길과 콘크리트 바닥위로 여러 형태의 벤치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치.
 - 허드슨 강변, 허드슨 야드 베슬, 첼시마켓 등 뉴욕 시내의 주요장소로 이동할 때 거쳐 가는 통로 구실, 연결도로로 구성되어 있어 공원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 연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다른 공원에서 보기 힘든 공원관리인은 공원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음.

- 『첼시마켓(Chelsea Market)』 미국 뉴욕의 쇠퇴한 과자 공장지대를 새로운 건물 증축이 아닌 기존 건물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 원래 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상점들이 입주함에 따라 예술과 패션 거리로 탄생했다.
 - 전통을 살린 기존 건축 인프라를 최대한 유지하려 하였으며 LED 대형 광고판, 분수대, 환기시설 등 현대의 시설을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
 - 가족 중심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분위기와 다양한 상품 구성, 배치
 - 식음 공간을 기본으로 전시,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 판매공간, 교육공간, 기타 공용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켓의 대표코너로 인식할 정도로 식음 공간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호평받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바로 옆에 최근 오픈한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의 경우 베이커리, 커피, PUB등 복합공간으로 첼시마켓에서 접할 수 없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 기대.

- 『뉴욕센트럴파크(New York Central park)』 공공복지를 위한 뉴욕 맨허튼에 있는 도시 중심부의 공원이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공원으로 꼽힌다. 공원에는 인공호수, 연못, 산책로, 아이스링크, 동물원, 정원 등 넓은 자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원 내 도로는 보행도로와 자전거도로, 차도로 구성. 보행자 우선의 보도환경과 공원의 규모에 따른 연결성, 이동수단, 관광 자원 등을 고려 자전거도로 운영방법(도면 내 표시, 신호등 운영 등)이 눈에 띄었다. 공원 내 차도는 친환경 전기차로 운영 중.
 - 다른 공간과 다르게 쓰레기통을 3가지(일반쓰레기, 플라스틱·유리, 종이)로 구분하여 쓰레기 관리·처리를 하고 있음.
 - 공원에 대한 안내, 출입을 금하는 안내판 등 공원 내 설치된 정보(인포메이션)의 경우 우리 자치구와 비교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자연림을 유지, 관리하는 하나의 운영방법이라 생각함.
 - 공원 내 설치된 벤치, 바닥 등에 개개인이 원하는 메시지를 부착, 새겨놓은 것을 통해 미국 사회의 기부 문화를 살펴봄.
 - 센트럴파크의 관광자원이었던 마차가 최근 동물보호단체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사업종료가 될 예정. 이에 대체방안으로 지금부터 자전거 마차를 병행 운영 중.

- 『주택감독관(Housing Inspector) 사무소』 Mr. Nicholas Defelice 대표의 라돈가스 처리 방안과 Ms. Kay Gwaltney, Mr. Joshua Yeom 주택 감독관의 석면, 납 성분 페인트에 대한 실태 등에 대해 미국의 정책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사회 문제가 된 라돈에 대하여 미국 사회의 비슷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에 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도 살펴 보았음.
 - 석면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음.
 - 오래전 페인트에 많이 사용된 납 성분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미국의 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정책을 살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Brooklyn Bridge Park)』 오픈 스페이스와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공원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브루클린 브릿지를 배경으로 폐허, 슬럼화되는 공간에 대하여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 아직은 많은 공간이 공실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철길을 최대한 보존 하여 조성한 길을 따라 카페, 베이커리, 전시장 등 운영을 통하여 도시 재생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음.
 - 잔디밭, 모래박스, 놀이터 등 레저시설과 더불어 산책과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둘레길 조성을 통하여 수변공간의 이미지 변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
- 『국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 워싱턴 국회의사당 방문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과거 참여한 청와대 방문 프로그램과 비교, 생각해 보았다.
 - 약 100여 명이 한 한 그룹이 되어 미국의 역사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시청 후 약 20명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이드의 목소리가 나오는 헤드셋을 수령, 가이드의 설명과 더불어 시설을 둘러 봄.
 -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의 운영방법 중 사전 예약제, 가이드의 설명을 헤드셋을 통한 정보 전달 방법 등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허드슨 야드 베슬(Hudson Yards Vessel)』 2,500개의 계단이 엮힌 형태로 조성된 뉴욕 시내의 새로운 랜드마크 허드슨 야드 베슬에서 인근 인프라(더 하이라인 파크, 허드슨강 등)와 상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공간적 위치 선정과 아울러 방문객들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내 구성(녹지, 벤치)에 대하여 성공적인 사업이라 생각한다.
- 더 하이라인 파크는 허드슨 강변까지 연결되어 있다.
허드슨 강변을 이동 중에만 볼 수밖에 없었지만 대형선박(페리) 선착장, 수산시장, 공원에 조성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에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 허드슨 야드 베슬 바로 옆에는 대형 쇼핑 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야드 베슬 공원 내 pop-up store 운영.
지역 관광 자원을 상품화, 판매, 홍보하는 방법과 아울러 공원내 녹지 조성 및 휴식공간 운영이 인상이 남았다.

□ 의견 및 향후 활용방안

○ 선진지방자치 제도

- 1) 페어팩스 시 의회는 주민이 언제든지 의회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을 의회에 전달,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은평구의회도 주민이 의회의 과정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의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 개선해 나아가길 희망함.
- 2) 뉴욕시 센트럴파크, 페어팩스 시 등 공원,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 펀딩으로 개개인의 메시지 부착은 은평구 내 특정 장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개, 구민 참여 펀딩 사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음.
- 3) 공공사업 진행 시 민·관 협의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면 사업 시행 과정에서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주민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공공녹지(공원, 불광천 등) 운영 관련

1) 적절한 정보(인포메이션) 운영

뉴욕의 센트럴파크, 더하이라인파크 등에서 인상적인 것은 공원 안내 표시, 쓰레기 분리 안내, 출입을 금하는 안내 등을 최소한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된 정보(인포메이션)이라 생각한다.

은평구 관내 공원, 불광천 등에는 인근 상권을 안내하는 광고판, 애완견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인포메이션)으로 과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정보(인포메이션)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수목관리

뉴욕, 워싱턴 공원, 공공시설에서 마주한 수목을 보면서 여러 관리를 통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생각된다.

은평구 가로수, 공원에 있는 수목의 경우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 가로수 수형 조절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상항이라 생각한다. 일부 구간에 대하여 주민의견 등을 바탕 수목변경 사업을 강구,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자원순환

1) 장기계획을 통한 은평구 쓰레기 수거함 정비

뉴욕, 워싱턴의 거리에서 접한 쓰레기통은 2가지, 3가지 색으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치구별 설치시기에 따라 또는 자치구별 다른 형태, 색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시간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연차별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자치구, 광역,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함 정비·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교육기관·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수거함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계기를 시작으로 이를 실생활에 실천하는 문화가 정책, 자원 재활용(리사이클링)을 많은 사람이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 지역 관광특구 조성

1) 은평구 지역관광 상품 개발

뉴욕, 워싱턴 여러 장소에서 지역을 상품화한 모자, 의류, 초콜릿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화하여 판매상품을 접할 수 있었다.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뉴욕의 허드슨 야드 베슬(Hudson Yards Vessel) 또한 기념품을 생산하여 pop-up store, 쇼핑 타운에서도 접할 수 있었다. 은평구는 진관사, 한옥박물관 등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상품화를 고민해 보았다.

2) 관광 콘텐츠 개발

국내 연수 시 방문한 순천만 국가정원, 새만금방조제, 제주 4.3 평화공원 기념관 등에서 느꼈던 부분이 시설을 조성,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시설을 둘러보는 것보다 관련 해설가의 설명은 방문객의 이해 및 만족도를 높였다 생각하였다.

워싱턴 국회의사당, 뉴욕의 허드슨 야드 베슬 방문 시 예약시스템을 통한 운영방법과 아울러 해설가와 더불어 헤드셋을 통한 정보전달 방법 등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해 보았다.

○ 지역경제 활성화

1) 전통시장 활성화

첼시마켓에서 여러 상점 중 식음 공간이 기억이 남는다.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식음 공간 내 운영 대표 상품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다.

또한 가족 중심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분위기와 다양한 상품 구성, 배치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나무위키
- 위키피디아
- 한국석면관리연구원
- 방문 기관 및 시설 누리집(홈페이지) 및 책자